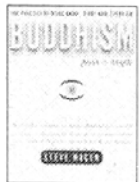


해외신간

배우기 쉬운 불교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 숨겨진 지혜를 찾도록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다.

스티브 하겐은 서문에서 "딱딱한 교리보다 우리 모두가 부딪칠 수 있는 일상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루 한번 읽는 禪 이야기



조금씩 실행하고, 당도도 점차 높아간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진 스미스는 <하루 한번 읽는 선 이야기>에서 "면벽의 시간이 바로 수박이 자라는 시간이다"고 말한다.

신과 부처님

종교를 기도, 구원, 슬픔, 위협 등 네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종교별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 <신과 부처님>이 나왔다.

종교 저널리스트인 후지다 쇼이치(藤田庄市)가 92년부터 98년까지 취재하며 모은 자료와 기사를 책으로 펴낸 것. 스님의 활동, 장의(葬儀) 및 묘지 현황, 음진리교사건 등도 다루고 있다.

어린이용 경전 '지혜의 싹' 키운다

백유경·법구경·천수경등 꾸준히 읽혀 삽화 곁들여 친근감...만화로도 출간 전문필자 양성-눈높이 편집등 서둘러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손을 잡고 책방 여시아문을 찾은 김정주씨(51)씨는 어린이 코너의 서적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불서는 약 1백여종에 이른다. 이 중에 경전류는 10여종, 적은 수량이지만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높다.

경전은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자들의 인식과 전문필자, 편집 및 활자, 시정형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불교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장기적 안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좋은 어린이 불서 출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교계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어린이용 서적들은 많이 판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장에 맞게 집필한 필자들도 없는 현실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불경이야기>(국민서관 판), <어린이 불교상전>(단인서관 판), <불교이야기>(창작과 비평사 판) 등도 경전을 중심으로 육바라밀, 우화 등을 가려뽑아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게 한다.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불서 코너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김재웅 법사 법어집 '금강경을 배우고...' 영역출간 '화제' 달라이라마 서문 써

김재웅 법사의 법어집이 <금강경을 배우고, 마음을 깨치네>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미국 위즈덤 판)로 영역돼 미국에서 출간됐다.

김재웅 법사 법어집 '금강경을 배우고...' 영역출간 '화제'

달라이라마 서문 써

김재웅 법사의 법어집이 <금강경을 배우고, 마음을 깨치네>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미국 위즈덤 판)로 영역돼 미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에서 김법사는 "마음은 마음답게 있어야 본래의 불성이 발현될 수 있고, 마음이 마음답게 있지 못하고 어디에 제약을 받게 되면 불성은 자취를 감출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5월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일상 소재로 쉽게 화엄경 설법

장산스님 '화엄경 백일법문' 펴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처음 설법한 <대방광불화엄경>은 수행을 통해 모두가 남김없이 성불하는 진실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 대승경전이다.

<화엄경>을 백일동안 법문한 것을 토대로 한 <화엄경 백일법문>이 책으로 나왔다. 부산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이 펴낸 이 책은 <화엄경>을 첫 품부터 마지막까지 중요대목을 가려

뽑아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했다.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품의 내용을 가려뽑아 한문원문 번역과 함께 차근차근 소개하면서 설법한 이 책은 평소 화엄경을 보고 싶어도 그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던 대중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장산스님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한 명쾌한 설법은 <화엄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삶의 지혜를 잔잔히 일깨워준다.

게 한다. 장산스님은 "책으로 펴낸 것은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열음이 있기를 바래서였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흔적도 자취도 없는...

생내경 지음

법화행의 삶으로 가는길 안내



이화대 통계학과 생내경 교수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시리즈가 완간(전 4권)됐다. 법화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시리즈 1권에서 한국 불교의 주된 수행방법인 참선에 대해 조명하고, 2권에서 미신과 사이비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3권에서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수인지에 대한 논리를 가했던 생교수는 제4권 <흔적도 자취도 없는 행을 위하여>에서 법화행을 강조하고 있다.

순하면 살고 역하면 죽는다 '보현행을 하자'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화행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다. (중명, 값 1만5천원)

신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계석 지음

성경의 허구-세뇌성 논리적 서술

"비기독교인에게 바이블을 읽고 감상을 쓰게 한 후 예수(여호와)를 믿고 받들라고 설득하게 되면 그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바이블 이전에 기독교에 의하여 설득(전도)되어 기독교 신자가 된다." 미국 필라델피아대학교장을 역임한 이계석씨가 펴낸 <신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에서 바이블은 허구 모순 궤변에 앞서 인간을 매혹노로 세뇌시키는 무서운 독이며 감염된 자의 모든 것은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간다고 서술하고 있다.



신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 책은 5월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정대선사법어집' 출간



상당범어 23편 수록 설법 주제별 경구 인용 '40년 수행' 문도회 엮어

"한 생각 마음 위의 청정한 지혜공명이 자가법당의 법신불이며, 한 생각 마음 위의 분별없는 몸이 자가법당의 보신불이 아니라, 그러나 부처를 구하면 부처에 얽매게 될 것이요, 조사를 구하면 조사에 얽매게 될 것이니 구하는 것이 모두 괴로움이다."

40년 가깝게 수행생활을 해 온 정대선(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의 법문을 엮은 <정대선사법어집>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대중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갈했던 상당(上堂)범어 23편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출구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집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회 펴내

공과 연기를 동시성 철학, 신학, 현대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논문이 책으로 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펴낸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은 지난해 6월에 걸쳐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12명이 발표한 논문을 모아 엮었다. 이 책은 불교와 불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와 현대과학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공과 연기를 조명하는 이 논문들이 불교와 다른 학문 분야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산에는 꽃이피네(소)',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불교 선수행의 핵심'.

구입문의: (02)737-0695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이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I. 새벽예불 II. 오분향례 III. 부처님시여, 크나큰 진리여 IV. 거룩한 사대보살 V. 영산회상의 제자들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VII.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5,000원